

速解 能力 向上에 관한 研究  
A Study on Development of Rapid  
Reading and Comprehension Ability

전주기전중학교

소연자

# 1. 서 론

## 가.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속해 독서법”의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속해 능력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으며, 속해 능력이 일반 교과목 학습 능력과 지능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을 읽는 속도와 이해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그리 깊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당 1,000~1,500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평균 읽기 속도는 분당 600자 내외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200~300자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허다하다(원동연, 2001:42). 이러한 읽기 속도는 학생들의 지적 활동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적은 정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읽기 속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나아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정상 속도 만으로라도 회복된다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경우에 2배 내지 3배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양이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질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속독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능적으로 빨리만 읽기에 급급했다.

이 연구에서 읽기란 ‘정확하고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이라 전제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언어 활동이 읽기 자료의 ‘정확하고 빠른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한다. 나아가 속해 능력이 일정 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속해 독서법”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속해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이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 및 지능지수(I.Q.)와 비교하고 그 유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관련성이 확보되면 속해 독서법을 통한 새로운 읽기 지도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단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속해 능력의 신장을 위한 도구와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하여,
- (나) 표본 집단의 훈련 결과물을 수집하고,
- (다) 이를 분석하여 유의성을 추출하며,
- (라) 이 유의성을 교과별 학업 성취도 및 지능지수(I.Q.)와 비교 분석하여 상관성을 밝히

고,

(마) 속해 능력의 신장 방안을 '읽기(독서)'지도 방법의 일환으로 일반화하고자 한다.

#### 다. 연구의 시사점

(가) 속해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읽기의 방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이나 주의가 필수이고, 훈련에 임하는 진지성과 적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속해 자료는 의미 있는 정보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적 수준, 독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다) 속해와 속독의 차이를 규명하고 속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여야 한다.

(라) 속해의 방법과 기술을 체계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속해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속해 방법을 국어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교과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 2. 속해의 개념과 저해 요인

### 2.1. 속해의 정의와 효과

여기에서 속독(速讀)과 속해(速解)를 구별해 보기로 하자. 그 동안 실시되었던 속독은 빨리 읽는 기능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 속해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빠르게 읽는 것이다. ‘읽기의 행동이 빨라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의미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읽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 능력의 확대와 비례하여 빨라져야만 최대의 독서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읽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너무 천천히 읽으면 단락 내의 생각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이해도가 떨어진다. 또한, 정보의 처리의 과정에서 단기 기억은 정보의 양과 유지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혼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조직과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Smith, 1982:22).

속해 독서법은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독서를 수행할 수 있어 단순히 정보처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두뇌에 입력, 저장시킬 수 있고, 변용하여 인출시킬 수 있어 지식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 기능이다.

그 외에도 속해 독서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은 여러 가지다. 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독서의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독서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며, 창의성과 새로운 사고를 갖게 한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두뇌를 활성화시키며, 명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고, 두뇌의 생리적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각종 자격, 승진시험, 연수 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고학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기초 학습기능이 된다(박화엽, 1996a).

### 2.2. 읽기 태도 실태 기초 조사

기전여중 실험군 32명과 비교군 33명을 대상으로 읽기 태도를 설문 조사하여 속해 능력 향상의 저해 요인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았다.

<표 1> 읽기 태도 실태

구 분	매우 그렇다 (자주 한다)	보통이다 (가끔 한다)	아니다 (전혀 안 한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	15%	70%	15%					
읽기 속도가 남보다 빠르다고 생각한다.	25	34	41					
독서할 때 눈과 고개가 같이 움직인다.	27	33	40					
연필로 글자를 짚어가면서 읽는다.	7	35	58					
소리를 내며 읽는다.	3	35	62					
소리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따라 읽는다	73	20	7					
의미단위로 띄어 읽는다.	9	51	40					
빨리 읽으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된다.	27	54	19					
빨리 읽기보다는 내용 파악을 위주로 천천히 읽는다.	22	53	25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여 읽는 습관이 있다.	33	39	28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 그 낱말의 의미를 꼭 알아야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21	46	33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십니까?								
권수	0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	25	34	22	9	3	3	3	1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읽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매우 적었는데, 그 이유는 속으로 따라 읽기, 단어나 구절 반복하여 읽기, 내용 파악 위주의 천천히 글 읽기 등이 속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 2.3. 속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

#### 2.3.1. 역행(regression)

지나치게 이해력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나쁜 읽기 습관 중의 하나는 역행(regression, 또는 퇴행)<sup>8)</sup>이다. 즉 한 번 읽었던 단어나 문장을 재차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 2.3.2. 안구 고착(eye fixations)

글을 읽는 동안에 사람의 눈은 계속적인 진행 속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은 것을 휴지 또는 고착, 정지 상태라고 한다.

문장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시각을 멈추는 이유는 눈이 감지한 시각 정보를 뇌로 전송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읽을 때 눈의 정지 상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용을 이해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시야의 폭이 좁아져서 읽기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정동수, 1987:50-51).

#### 2.3.3. 음성화

보통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따라 읽는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의 눈이 글자 한 자에 시점(視點)을 주면 우리의 뇌는 그 글자의 발음기호를 먼저 상기하여 글자의 속발음(음독, 묵독)을 한 뒤 속발음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 그때서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러한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8) 발달심리학의 용어인 '역행, 퇴행'과는 구별되어야 함.

눈으로 읽고 있지만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기 때문에 1분당 400~700자밖에 못 읽는 것이다.)<sup>9)</sup>

#### 2.3.4. 낱말 가리키기

손가락으로 낱말을 가리키거나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읽는 것은 빨리 읽기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손가락으로 단어를 가리키며 읽을 경우는 단어를 하나하나 지시하게 되어서 사고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 2.3.5. 정신 집중력

읽기에 있어서 정신 집중은 필수적이다. 정신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읽었던 문장을 읽고 또 읽어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만큼 속도도 떨어지게 된다.

### 2.4. 속해 능력 향상을 위한 부정적 요인 제거

#### 2.4.1. 눈으로만 읽기

일단 속으로 따라 읽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속으로 따라 읽지 않기 위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혀를 윗니 뒤에 붙이거나 윗니와 아랫니로 가볍게 문다. 이것이 훈련되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안 움직이게 된다.

#### 2.4.2. 안구 운동

사람들의 독서 자세를 분석해 보면 안구를 움직이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개를 돌려가면서 책을 읽기도 한다. 눈 운동을 통해서 눈동자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바른 자세를 가지면 독서 속도가 빨라지며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안구 운동을 위해서는 ‘안구 훈련표’를 가지고 훈련하면 효과적이다.

#### 2.4.3. 의미 단위로 사선 치며 읽기

일반적으로 한 문장은 ‘주어부+술어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주어부와 술어부가 확장되어 복잡한 문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들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이것을 ‘의미 단위(sense group, thought group)로 읽기’라고 한다.

“그 / 숙 / 녀 / 의 / 이 / 름 / 은 / 니 / 키 / 다……”로 한 글자씩 떼어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 숙녀의/이름은/니키다.”와 같이 문장의 일정한 의미 단위를 사선으로 치면서 끊어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의미 파악이 쉬어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많은 단어를 묶어 가면 절대 안 된다. 실제 이해되는 의미 단위는 2~3단어인데 무리하게 7~8단어씩 묶어간다면 이해를 못한 채 넘어가기 때문에 속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시켜야 하고, 앞서 끊어 읽는 범위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 늘려야 효과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선 치기가 귀찮고 오히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 사선을 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사선을 치면서 꾸준히 의미 단위를 확장을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시점에 갔을 때 정보를 처리하는

9) 일반적으로 숙련된 아나운서들이 1분에 600~700자 정도를 읽는다.

양이 분명히 다르다(원동연, 2001).

#### 2.4.4. 역행의 방지 - 모르는 낱말에 네모 치기

역행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식적 멈추지 말고 계속 읽어 나가야 한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 때문에 글 읽는 것을 멈추고 그 뜻을 찾기보다는 끝까지 읽 으면서 그 낱말의 뜻을 추측한다. 모르는 낱말이 나올 경우에는 그 낱말에 네모를 쳐서 표시해 두고 글 전체를 읽는다. 그렇게 하면 내용의 흐름 속에서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2.4.5. 몸과 마음의 준비

▶ 바른 자세 - 엎드리거나 일그러져 있는 자세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척추를 바로 펴고 바르게 앉는다.

▶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심호흡(복식호흡)을 하는 것이다.

▶ 혀의 고정 - 소리 내지 않고 따라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혀를 윗잇몸에 갖다 대거나 이로 물어 고정시키고 눈으로만 읽는다.

### 3. 연구의 실제적 진행

## 3.1. 실제 훈련

#### 3.1.2. 안구 운동

안구 훈련표(<부록1>)를 보고 1분 동안 전체를 몇 번 보는지 적는다.<sup>10)</sup> 이렇게 3회에 걸쳐 훈련한다.

#### 3.1.2. 의미 단위로 사선 치면서 책읽기

속해 훈련 자료를 매회 1편씩 사선을 치면서 읽는 훈련을 한다. 이 때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1편을 읽는데 4분 10초가 걸렸고 그 글의 글자수가 2,056자였다고 하면, 1분당 독서 속도는 495자가 된다. 측정한 1분당 글자 수를 누가 기록하여 자신의 향상도를 파악해 본다.

#### 3.1.3. 내용 요약

속해 자료를 다 읽은 후 본문을 다시 읽지 않고 읽은 내용을 5~6줄 정도로 요약한다.

#### 3.1.4. 문제 풀이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풀이로 속해 자료에 대한 내용 이해도를 측정해 본다.

문제는 미국의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1990)에서 개발한 "Fiction"의 1단계 문제인 Jan Gleiter의 "Who Gets What?"을 참조하여 필자가 만든 것으로 ▶ 내용 이해 문제(3문항) : 2지 선택형 ▶ 생각을 발전시키는 문제(2문항) : O , X 문제로 5문항으로 구

10) 3회 훈련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적으며, 6회 3줄을 보았다면 6.3회로 기록한다.

성되었으며 듣기 평가 식으로 평가한다.

요약 정리한 내용을 주제, 구성, 표현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상위 순서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을 1점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3.2. 표본 집단의 구성과 그 특성

속해 능력 향상도 측정 대상은 전주 시내에 소재한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실험군(1학년 1반 32명), 대조군(1학년 2반 33명)이다. 구체적인 대상 학생의 특성, 조사 기간, 조사 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 집단의 구성과 특성

학교(학급)	전주기전여자중학교(1학년 1반)
학생수	32명
기 간	2002. 9. 16 ~ 2002. 11. 16 (매주 5~6일, 8주간, 40회)
시 간	아침 자율학습 시간
소요 시간	15분에서 20분(08 : 10 ~ 08 : 30)
학생 특성	학급 전제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도 한두 명 있음.
시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분야이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가속되는 속해자수의 향상이 성취의욕을 불러 일으켰음.</li> <li>●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관계로 학생들의 불만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함.</li> <li>● 읽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선 치기보다 점을 찍는 아이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사선 치기보다 점을 찍는 작업이 더 간단하고, 미세한 차이나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li> <li>● 비교 집단 한 반(1학년 2반)을 선정하여 충분히 시간을 주어 읽게 한 다음 요약정리하고 문제 풀이도 하였다.(3회 실시)</li> </ul>

### 3.3. 구체적 실행

#### 3.3.1. 실행 전 준비

거의 매일, 1주에 5~6회 정도(시험, 소풍 등 학교 행사 또는 공휴일은 실시 안함) 실시했는데, 실시 도구로는 ‘안구 훈련표(<부록 1>’, ‘속해 자료(<부록 2>’, ‘문제 풀이(<부록 3>’를 활용하였다.

#### 3.3.2. 훈련 실행

훈련은 안구 훈련, 사선을 치며 읽기, 내용 요약 정리, 문제풀이 순으로 실시했다. (주어진 여건상 총 8주간 40회 실시)

#### 3.3.3. 결과 처리

안구훈련 결과, 1분당 독서 속도, 내용 요약 점수(10점 만점), 문제풀이 점수(5점 만점)를 ‘속해 독서 훈련표’에 누가 기록하여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 4. 결과 및 분석

### 4.1. 기초 통계

이 연구에서 다양한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SPSS 10.1이며,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수간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나아가 실험처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의차 검정(significant test)을 위하여 이표본 t-검정(two sample t-test)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훈련에 따른 속해자수와 속해 능력에 대한 추이와 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4.1.1. 실험군의 결과 분석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속해자수, 속해 점수, 속해자수 기울기, 속해력 기울기, 자수와 속해력 상관관계’에 한정한다.

먼저 속해자수의 평균은 분당 1,055자로 처음 시작할 때의 평균은 476자이었고, 마지막은 1,592자였다. 이는 매회 26.7자씩 처음보다 3배에서 4배까지 향상된 것이다.

속해 점수는 2.6점에서 4.78점으로 2배 이상이 향상되었으며, 속해력 기울기에서 점수의 증가는 0.06으로 매회 0.06점씩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속해자수와 속해력 상관관계는 0.438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해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속해 점수도 향상되어 속해 능력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2. 속해 속성에 대한 상관계수

<표 3> 실험군 전체 상관 계수

구 분	속해 점수	속해자수	속해력 기울기	속해자수 기울기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
속해 점수	1.0000	0.4540 *	0.5838 **	0.1628	0.5268
	·	0.0103	0.0006	0.3816	0.0023
속해자수	0.4540 *	1.0000	0.2977	0.6087	0.2304
	0.0103	·	0.1039	0.0003	0.2124
속해력 기울기	0.5838 **	0.2977	1.0000	-0.0926	0.7071
	0.0006	0.1039	·	0.6202	0.0000
속해자수 기울기	0.1628	0.6087 **	-0.0926	1.0000	0.1028
	0.3816	0.0003	0.6202	·	0.5821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	0.5268 **	0.2304	0.7071 **	0.1028	1.0000
	0.0023	0.2124	0.0000	0.582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해 점수와 속해자수 간의 상관관계는 0.45로 ( $p < 0.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해 점수와 속해력 기율기 간의 상관관계는 0.58로 ( $p < 0.01$ )에서 유의하며, 속해 점수와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 간의 상관관계는 0.53으로 (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해 자수와 속해자수 기율기 간의 상관관계는 0.6087로 ( $p < 0.01$ )에서 유의하며, 속해력 기율기와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 간의 상관관계는 0.71로 ( $p < 0.01$ )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읽기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속해 능력도 향상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36회에 실시한 ‘니키’를 읽고 요약 정리한 결과물을 살펴보면, 1분에 814자를 읽은 양○화는 속해 점수 3점, 829자 읽은 송○란은 5점, 1,657자 읽은 임○림은 6점, 1,945자를 읽은 김○하는 8점을 획득, 속해자수에 비례하여 속해 점수가 증가했음을 입증한다.

▶ 임○림, 속해글자수 1667자, 속해 점수 6점

- ① 인기 많은 치어리더 ② 가발 쓰고 다니는 이상한 소녀(백혈병)
- ③ 학교를 그만 둬(친구들이 싫어해서)
- ④ 오하이오 주에서 용기를 얻음.(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s)
- ⑤ 가발을 벗고 학교에 감. ⑥ 참된 용기의 소녀가 됨.
- ⑦ 잘 살고 있음 ⑧결론 - 참된 용기를 갖자.

▶ 김○하, 속해글자수 1945자, 속해 점수 8점

중1인 니키는 백혈병에 걸려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니키를 피하고 놀렸다. 니키는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다.

한 이야기는 성경을 들고 다니던 한 남학생이 자신을 놀린 학생한테 성경을 건네줘서 친구로 만들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표어 ‘유레카’처럼 자신이 사는 오하이오 주의 표어를 만들어서 ‘하느님과 함께 하면’이라는 표어를 만들었다.

그 후 니키는 가발을 벗고 학교에 갔고, 아무도 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으며 아이까지 두고 있다.

### 4.3. 교과목 간의 상관계수

#### 4.3.1. 표준 과목별 상관계수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가 어떤 교과목과 관계가 깊은가를 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표준 과목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표준 과목 간의 상관계수는 7가지 과목 모두 상관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국어와 사회 간의 상관이 0.91, 기가와 사회 간의 상관이 0.90으로 ( $p < 0.01$ )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어는 모든 과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사회(0.91), 기가(0.89), 과학(0.88), 도

덕(0.86), 영어(0.78), 수학(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어가 모든 과목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교과 학습에 있어서 국어가 기초가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든 과목을 어려움 없이 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3.2. 과목별 상관계수

실험군의 과목 간의 상관계수는 7가지 과목 모두 상관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국어, 사회 간의 상관이 0.91, 기가와 사회 간의 상관은 0.90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어는 모든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그 중 국어는 언어, 수학은 수리라는 확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0.68로 다른 과목과의 상관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긴 하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4.4. 교과목 & 속해 속성 간의 상관계수

#### 4.4.1. 속해 & 교과목 간의 상관계수

교과목과 속해 속성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속해 점수는 모든 과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속해자수는 과학, 국어, 기가, 영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속해력 기울기와 속해자수 기울기,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는 교과목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해 점수는 국어가 0.78( $p < 0.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 기가, 사회, 영어, 과학, 영어, 수학의 순이다. 속해자수는 영어(0.48), 과학(0.46)과 국어(0.45), 기가(0.3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 영어, 과학, 기가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속해자수의 증가 속도가 빨랐으며, 속해 점수가 높은 학생이 모든 교과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속해자수보다 속해 점수가 모든 교과와 좀더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언어 능력이 모든 교과목을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나아가 속해 능력이 교과 학습 능력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학습은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되새겨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 4.4.2. 속해 & 객관식 문제 간의 상관계수

속해자수와 과목과의 상관계수는 영어 0.49( $p < 0.05$ ), 국어 0.46( $p < 0.05$ ), 과학 0.44( $p < 0.05$ )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어, 영어의 객관식을 잘 하는 학생들의 속해자수의 증가 속도가 빨랐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언어 사용 능력을 다루는 국어, 영어의 학습에 빨리 읽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속해 점수는 과학 0.54( $p < 0.01$ ), 국어 0.77( $p < 0.01$ ), 기가 0.68( $p < 0.01$ ), 도덕 0.77( $p < 0.01$ ), 사회 0.59( $p < 0.01$ ), 수학 0.67( $p < 0.01$ ), 영어 0.55( $p < 0.01$ )로 모든 과목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국어와 도덕이 가장 높았다.

속해력 기울기는 도덕 0.34( $p < 0.01$ )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속해자수 기울기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과목이 없었다.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는 도덕 0.37( $p < 0.05$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덕을 잘 하는 학생의 경우 속해자수가 늘어날수록 속해 점수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4.4.3. 속해 & 주관식 문제 간의 상관계수

각 교과목의 주관식 문제와 속해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속해 점수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국어가 0.75( $p < 0.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 0.59( $p < 0.01$ ), 기가 0.61( $p < 0.01$ ), 도덕 0.61( $p < 0.01$ ), 수학 0.45( $p < 0.01$ ), 영어 0.55( $p < 0.01$ )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속해자수는 과학 0.48( $p < 0.01$ ), 국어 0.42( $p < 0.05$ ), 사회 0.37( $p < 0.01$ ), 수학 0.37( $p < 0.05$ ), 영어 0.45( $p < 0.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과학, 영어의 순으로 높았다.

속해력 기울기, 속해자수 기울기,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과목은 없었다.

여기에서 객관식 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속해자수보다 속해 점수가 2배 정도 높은 점수로 주관식 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고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과정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이는 빨리 읽기만으로도 정보의 입수량이 늘어나 학습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겠으나, 속해 점수(속해 능력)를 향상시키는 것이 학습 능력을 배가시키는 좀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4.4.4. 속해 & 표준 과목 간의 상관계수

표준 과목과 속해 속성 간의 상관관계에서 속해 점수는 과학, 국어, 기가, 도덕, 사회, 수학, 영어의 모든 과목과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국어와 도덕이 0.77( $p < 0.01$ ), 0.75( $p < 0.01$ )로 높았다.

속해자수는 과학, 국어, 기가, 영어 과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그 중 영어가 0.48( $p < 0.01$ )로 가장 높았다.

#### 4.4.5. 속해 & 표준 과목 객관식 문제 간의 상관계수

표준 과목 객관식 문제와 속해 속성 간의 상관관계는 속해 점수는 과학, 국어, 기가, 도덕, 사회, 수학, 영어의 모든 과목과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표준 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도덕이 0.77( $p < 0.01$ )로 가장 높았다. 속해자수도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역시 영어가 표준 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속해력 기울기와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는 도덕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속해자수 기울기와 유의 관계에 있는 과목은 없었다.

#### 4.4.6. 속해 & 표준 과목 주관식 문제 간의 상관계수

표준 과목 주관식 문제와 속해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속해 점수는 모든 교과목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국어의 상관관계가 0.75( $p < 0.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속해자수는 도덕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과학(0.4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5. 속해 속성에 대한 t-test 비교

<표 4> 속해 속성에 대한 t-test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속해 점수	31	4.782258	0.80963453	0.14541465	32.8870437	30	0.0000
속해자수	31	1055.047	278.875565	50.0875301	21.0640768	30	0.0000
속해력 기율기	31	0.066247	0.02065809	0.0037103	17.85489	30	0.0000
속해자수 기율기	31	26.73327	10.2057084	1.83299934	14.5844416	30	0.0000
자수와 속해력	31	0.438547	0.11307035	0.02030803	21.5947833	30	0.0000

<표 4>는 속해 점수, 속해자수, 속해력 기율기, 속해자수 기율기, 자수와 속해력 상관관계수 간에 서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속해자수의 평균은 분당 1,055자이다. 처음 시작할 때의 평균은 476자였고, 마지막은 1,592자였다. 이는 속해자수 기율기의 결과처럼 매일 26.7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40회의 훈련으로 3배 이상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안구 훈련을 통해 눈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속으로 따라 읽기가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속해 점수는 평균 2.56점에서 최종 6.45점으로 향상, 전체 평균이 4.78점이었다.

속해력 기율기에서 점수의 증가는 0.06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0.06점씩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수와 속해력 상관관계는 0.48로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의 속해자수가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속해 능력도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과 이해의 과정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해는 읽는 속도와의 관계보다는 읽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배경지식)의 양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적정선까지 빨리 읽더라도 이해력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내용 요약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빠르게 중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물론, 정리된 생각을 글로 써 봄으로써 남이 써놓은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독서지도와 함께 작문지도가 동시에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이 훈련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과정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실험군의 중간과 기말고사에서 모든 교과 성적의 향상이었다.

#### 4.6. 안구 훈련

<표 5> 대응표본 통계량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대응 E1	3.38	31	1.18	.21
1 E40	13.055	31	3.326	.597

<표 6> 대응 표본 상관관계수

	N	상관계수	유의확률
대응 1 E1&E40	31	.027	.887

<표 7> 대응 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E1 E40	-9.226	3.500	.629	-10.510	-7.942	-14.676	30	.000

<표 5~7>는 안구 훈련 결과, 첫 훈련에서는 평균이 3.83회이었는데, 마지막에선 13.06회로 증가되었고, 이때  $t = -14.676(p < 0.01)$ 으로 안구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날마다 1분씩 3차례의 훈련만으로도 거의 4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인 것으로 1분에 20회까지 도달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안구훈련의 결과가 속해자수의 향상과 비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안구훈련이 눈동자의 흐름 및 시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안구 고착이나 역행을 방지하고 시야 폭을 확장하여 독서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 4.7. 실험과 비교군에 대한 속해자수와 점수 비교

##### 4.7.1. 속해 점수에 대한 비교

<표 8> 속해 점수에 대한 비교

	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W1	실험	31	2.5806	1.25895	0.22611	등분산이 가정됨	0.15529	0.6948	-5.3239	62	0.0000
	대조	33	4.2121	1.19262	0.2076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3148	61.16	0.0000
W40	실험	31	6.4516	1.20661	0.21671	등분산이 가정됨	0.00063	0.9799	7.0593	62	0.0000
	대조	33	4.4242	1.09059	0.1898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0368	60.38	0.0000

<표 8>를 보면 처음 실험에서 실험군의 평균이 2.58점인데 비해 대조군의 평균은 4.21점으로 대조군의 점수가 훨씬 높았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대조군은 제한 없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읽은 다음에 요약하게 한 것에 비해, 실험군의 경우는 가능한 빨리 읽은 후 요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직 훈련에 미숙한 실험군이 빨리 읽기에만 급급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마지막 실험의 결과에서는 대조군의 속해 점수는 4.42점으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거의 향상되지 않았으나 실험군의 점수는 6.45점으로 향상되었다. 천천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대조군보다 오히려 더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는 속해 훈련에 의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속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 4.7.2. 속해자수에 대한 비교

<표 9> 속해자수에 대한 비교

	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R 1	실험	31	479.16	141.74	25.46	등분산이 가정됨	0.107	0.745	-3.90	62	0.000
	대조	33	606.88	126.60	22.0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R 40	실험	31	1592.16	532.37	95.62	등분산이 가정됨	30.917	0.000	8.64	62	0.000
	대조	33	742.64	183.73	31.9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표 9>를 보면, 처음 훈련에서는 실험군의 1분당 속해자수가 479자인데 비해 606자로 오히려 대조군이 높다. 이는 실험군이 훈련 중임을 알고 실험에 경쟁적으로 임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지막 실험에서는 실험군의 속해자수가 1,592자로 처음보다 3배 이상의 향상을 보인 반면, 대조군은 742자로 미미한 향상을 보인다. 실험군의 향상은 훈련의 성과로 보이나, 대조군의 향상은 속해 자료의 난이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 4.8. 중간과 기말시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

각 과목 간에 중간과 기말 고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교과목 교사들이 평가할 때 되도록이면 학급 간의 차이를 줄이려고 난이도를 고려하는 등 여러 면에서 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수행평가의 경우는 학급 간의 평균이 거의 똑같다.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연구에서는 유의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0>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과목 성적 비교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타	
		실험	대조	실험	대조	실험	대조	실험	대조	실험	대조	실험	대조	실험	대조
1 학 기 말	종합	73.8	76.4	73.8	77.4	62.4	57.9	70.7	68.4	72.7	70	63.3	63.2	65.8	68.1
	객관	56.3	57.9	51.3	53.9	48.4	45.2	42.0	40.4	49.8	48	38.6	39.4	48.6	47.5
	주관	17.5	18.5	22.5	23.5	14.3	12.7	27.7	28.1	22.9	22	24.6	23.8	17.2	20.6
2 학	중간	81.1	76.2	83.1	83.6									78.4	74.1

주11) 40회 분 <참외서리>로 내용이 흥미 있고 비교적 쉬운 문장임.



런 있는 능력으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요인이기에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속해력 기울기와 속해자수 기울기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로 보이고 있다. 자수와 속해력 상관계수는 수량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I.Q. 0.41( $p < 0.05$ ), 언어검사 0.38( $p < 0.05$ ), 도형검사 0.40( $p < 0.05$ )이다.

즉, I.Q.가 높을수록 속해자수나 속해 점수가 모두 높았으나, 기울기의 결과로 보아 I.Q.가 높은 학생이 반드시 속해 능력 향상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어떤 학생이든지 훈련을 통해 속해자수나 속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록 지능이 낮은 학생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능검사의 결과는 수준별 반편성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

#### 4.10. 문제 풀이

<표 12> 문제 풀이 결과

실시 회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전체 평균
평균	4.4	4.1	3.5	4.2	4.3	4.0	3.8	3.7	3.7	4.2	4.4	4.1	3.7	3.2	4.1	4.3	3.7	4.3	3.6	4.6	4.1

문제 풀이의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 처음 단계부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4.1에 이르렀다.

이 결과는 훈련 21회 때부터 실시했기에 어느 정도 속해 훈련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속해 능력의 향상으로 읽은 내용을 대부분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몇몇의 학습 부진 학생들은 1~2점에 머물 뿐 향상되지 않았는데 문제 풀이가 내용의 이해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듣기 평가식의 문제풀이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들려주는 문제를 놓치기가 쉬워 내용을 이해했다라도 문제 풀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조군도 속해 자료 40회 ‘참외서리’를 시간제한 없이 읽고 요약하게 한 후 문제를 제시한 결과 4.4점을 획득했다. 이는 빨리 읽기를 한 실험군이 4.6점을 얻은 것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문제 풀이 능력이 속해자수나 속해 점수와 관련이 있으며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풀이 훈련은 글의 내용 파악에 집중하게 하며, 문제 구성이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와 생각을 발전시키는 문제로 되어 있어 사고력, 추리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듣고 풀어야 했기 때문에 단전을 부릴 수가 없다. 이런 부담감이 책을 읽을 때 빨리 읽으면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했으며, 나아가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보는 것도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 풀이 결과는 속해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를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4.11. 회귀선

<그림 1>은 회수(40회)에 따른 평균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에 대한 회귀직선 fitting한 것으로 위의 논의를 총괄한 표이다.

#### 4.11.1. 속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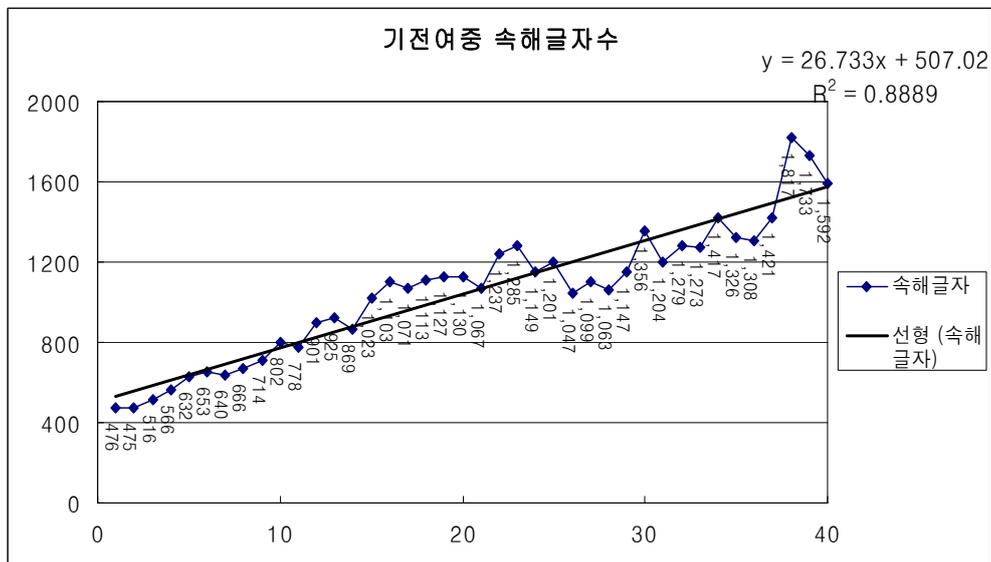
40회에 걸쳐 실시한 훈련 결과, 속해자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6자에서 1,592자로 매일 26.7자 정도가 향상되었다( $Y = 26.733X + 507.02$ ).

속해자수는 훈련 실시 4회 때(평균 566자)부터 이미 1,000자에 이른 학생이 눈이 띄기 시작했으며, 15회에 평균이 1,023자로, 최고 2,259자에 다다른 학생도 있었다. 39회에는 최고가 3,009자에 이르렀고<sup>13)</sup>, 평균 1,592자인 40회에는 2,000자 이상이 8명이나 되었다. 첫 회 235자에서 마지막 534자를 기록한 가장 저조한 학생도 처음보다 2배 정도의 향상을 보여 훈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한편, 37회에 평균 속해자수가 1,421자에서 38회에 1,817자로 증가, 하루 사이에 396자라는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 이는 훈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속해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속해 능력도 늘었다 본다.

성장 단계의 학생들이기에 매일 일정한 시간 책 읽기만을 실시해도 책 읽는 속도나 이해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러한 결과들은 ‘속해독서법’이 좋은 독서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고 본다.

<그림 1> 속해자수



이 연구에서는 훈련을 여러 여건 상 40회 밖에 실시하지 못하여 어느 단계까지 향상될 것인지 추측할 수는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실시할 경우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14)</sup>

13) 이 때 이 학생의 속해 점수는 6점, 안구 훈련 회수는 16.9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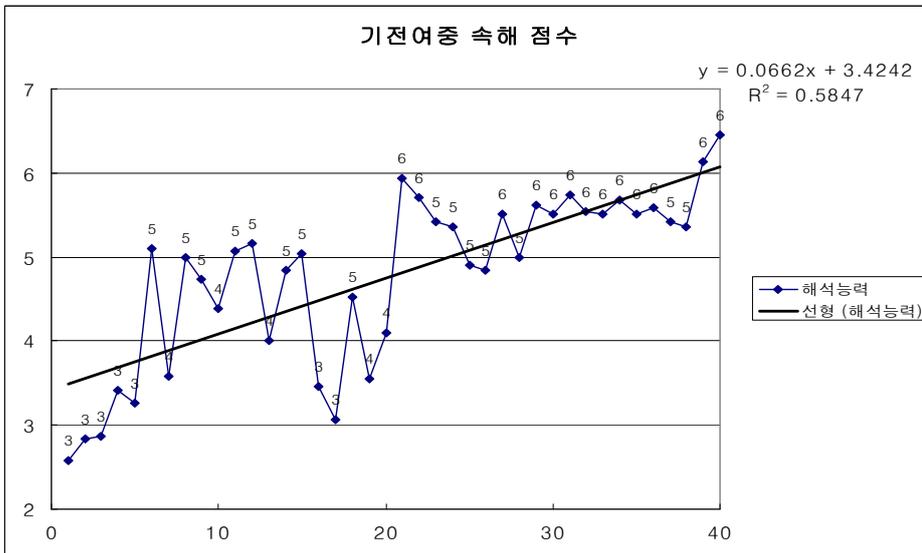
14) 3년 정도의 훈련으로 분당 7,000자까지 이른 학생도 있다고 한다.

#### 4.11.2. 속해 점수

속해 점수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루에 0.06씩 향상하여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Y = 0.0662X + 3.4242$ ).

처음에는 속해 점수가 평균 2.6점 정도로, 최고 점수인 5점을 획득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 의미 단위의 사선 치기가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속으로 따라 읽기 방지, 빨리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용 이해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장의 난이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 이름이나 한자어, 전문적인 용어, 생소한 낱말이 나오는 문장이나 번역 문장에서는 학생들의 속해 점수가 낮아졌다.

<그림 2> 속해 점수



1회에서 3회까지의 속해 자료 ‘잇을 수 없는 하룻밤’을 보면, 외국인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발레와 관련된 생소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 그리고 번역 문장에 글자수도 1회-1,977자, 2회-1,524자, 3회-2,449자로 분량이 많아 속해 점수가 평균 3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6회 ‘정홍순 대감 이야기’에서는 하루만에 5점대로 급상승을 보인 것을 보면, 문장의 난이도가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감의 폭이 컸던 속해 점수가 훈련이 거듭될수록 완만하게 안정된다. 이는 훈련 횟수가 거듭될수록 외국인 이름이나 전문 용어까지도 어느 정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었음을 증거하며, 재빠르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집중력과 기억력의 향상으로 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요약하였다고 본다.

이는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가 단계별로 제작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자료의 분량을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글자수를 늘려가거나, 외국인 이름은 문맥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거나, 전문적인 용어나 한자어는 쉽게 풀어 쓴다든지 학생 수준에 맞게 속해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인생, 자연, 과학, 역사 등 학생들의 경험 세계에 적합하고 다양한 자료를 엄선하여 제시하면 아름다운 정서와 인간성을 함양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치료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

실제로 2학기말 수행평가 말하기 시험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는데, 속해 자료 ‘전문가가 되십시오’, ‘인생의 목표’, ‘니키’, ‘신념’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사라진 대륙’을 읽고 학생들 사이에 ‘아틀란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16회에서 17회 사이에 속해 점수가 5점대에서 3점대로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훈련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속해자수 늘리기 경쟁이 붙어 빠르게 읽기에만 급급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15회에 2,000자를 넘는 학생이 처음으로 나타나자, 16회에는 학생들 서로 간에 암암리에 속도 경쟁으로 이어져 2,000자 넘는 학생이 4명으로 불어난 반면, 속해 점수는 떨어졌던 것이다.

학생들에게 속해 점수 평가지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은 여러 여건상 거의 실시하지 못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몇 마디의 주의만으로도 속해 점수가 향상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지나친 속도 경쟁으로 16회의 속해 점수가 급감하자 훈련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17회 자료 ‘선인장’에 대해 설명문 읽는 법, 내용 구조 파악 요령, 요약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요약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평균 3점 정도였던 17회 ‘선인장’에 대한 속해 점수가, 과학에 관한 설명문인 18회 ‘음식과 소화’에서는 5점이 가깝게 향상되었다.

이로 보아 매 회마다 문장의 종류에 따른 읽기 요령 지도, 요약 모범 답안의 제시, 우수 작품의 발표, 서로 돌려 보기, 내용에 대한 토론, 요약 방법 교육, 주제나 핵심어 찾기 등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작문지도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

현장 학습으로 인해 5회와 6회 사이에 3일 동안 쉬웠고, 20회와 21회 사이에는 중간고사로 일주일 정도의 휴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속해 점수가 높아졌다. 이는 새로 시작하면서 긴장하고 집중한 결과로 보며, 매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여건이 어려우면 주당 2~3회 만으로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어진 자료를 빠르게 읽기만 하지 않고 읽은 내용을 곧바로 요약 정리한다는 부담감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속해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나아가 재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함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독서 지도를 통해 작문 지도도 동시에 가능함이 확인되었다고 본다.<sup>15)</sup>

---

15) 김○하의 속해 점수는 2점으로 시작하여 40회에 가장 높은 점수인 10점을 기록했는데

## 5. 속해 독서법의 의의와 문제점

### 5.1. 속해 독서법의 의의

다음은 속해 훈련을 마치고 쓴 학생의 감상문이다.

▶ 책을 좀더 빨리 읽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글을 읽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문제를 풀거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좋았다. 또 평소에 읽어보지 못한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 바쁜 아침시간에 해서 그런지 너무 허둥지둥 배운 것 같아서 아쉽다. 또 기회가 있다면 천천히 느긋하게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책을 읽고 난 뒤 내용을 요약해서 친구에게 말해주기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글을 읽고 난 뒤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친구에게 말해준다면 재미도 있고, 다른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서로 요약한 것을 바꿔 읽어본 다음, 잘못된 점이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133 박○미)

위의 감상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속해 독서법의 훈련으로 책읽기의 속도가 빨라져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독서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력이 높아졌다. 또한 내용의 요약정리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종합력,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교과 성적의 향상 및 학습 능력 증진의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매일 글쓰기 훈련으로 작문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본다.

문제 풀이 과정은 속해 자료에 대한 중요 내용을 이해하는 단순한 정보처리 기능만이 아니라, 문제 풀이 능력과 함께 듣기 능력은 물론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추리력 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속해 독서법은 단순한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만이 아니라 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애고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게 하며, 독서의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독서 기능이다. 또한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을 확대시키는 학습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적 능력의 향상으로 교과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정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 정보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5.2. 속해 독서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속해 훈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부록 9>), 2003년 교내국어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최○재와 배○화도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등 수상자 6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이 속해 훈련을 받았다.

### 5.2.1. 훈련 시간의 확보

먼저, 학생들의 속해 훈련에 대한 불만이 감상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훈련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재량 활동 시간이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136시간, 고등학교 20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량 활동 중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에 가장 적합한 활동은 독서 활동이라고 본다.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한 독서 지도를 위한 하나의 방안은 속해 독서법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충분히 확보된 시간 속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교사는 다양한 방법의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sup>16)</sup>

### 5.2.2. 속해 자료의 수준별 제작

앞에서 외국인 이름이나 한자어, 전문 용어 등의 문장의 난이도와 읽기 자료의 분량이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표 13> 문장 분석 결과

	정홍순 대감 이야기	잊을 수 없는 하룻밤	화법에 대하여	동그라미 구두병원
문단수	22	58	31	72
문단당 평균 문장수	1.727272	1.931034	1.870967	1.541666
문장수	38	112	58	111
문장당 평균 어절수	8.236842	6.5	14.172413	5.441441
어절수	313	728	822	604
어절당 평균 음절수	2.789137	3.1153846	2.7919708	2.958609
총 음절수	873	2,268	2,295	1,787

<표 13>의 문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장당 어절수 평균은 ‘정홍순 대감 이야기’가 8.2이고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 6.5인데 비해, 어절당 평균 음절수는 ‘정홍순’이 2.8, ‘잊을 수’가 3.1이다. 그런데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는 ‘정홍순’가 높았다. 속해

16) 필자는 2003년 1월, 9명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씩 20회의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요약한 내용의 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피드백으로 학생들의 속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목격하였다.

가 비교적 쉬운 것은 총 음절수가 무조건 적은 것이 아니라 어절당 평균 음절수는 적되, 문장당 어절수가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몇 개의 단어 묶음을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사선 쳐진 범위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짧은 음절로 된 단어가 많은 문장이 유리하다고 본다.

역시 ‘화법에 대하여’가 ‘동그라미 구두병원(1)’보다 속해글자수와 속해 점수가 높았는데 어절당 평균 음절수는 0.2정도 적고, 문장당 어절수는 8.8정도 많다. 이에 훈련 초보 단계에서는 어절당 평균 음절수는 적되, 문장당 어절수가 많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용어도 수준별 선택이 필요하다. 처음 단계에서는 외국인 이름은 문맥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 이름으로 바꾸거나, 전문적인 용어나 한자어는 쉽게 풀어 쓰는 등 단계별로 난이도가 고려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 초기에는 쉽고 흥미로운 내용의 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생의 지적 수준과 독서 능력이 속해 자료의 수준과 맞아 떨어질 때 학습 동기나 흥미 유발이 잘 되어,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게 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이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인생, 자연, 과학, 역사 등 학생들의 경험 세계에 적합하고 다양한 속해 자료를 엄선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서와 인간성을 함양시키는 효과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독서치료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문제 풀이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의 문항 제작이 필요하다. 이 문제 풀이 과정은 속해 훈련 중간 단계부터 실시한 것으로 속해 점수가 주관적인 평가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문항이 본문 내용 파악 위주의 문제로 사실적 사고를 측정하는 데 그쳤으며, 훈련 대상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한계점이 있다. 단순히 내용 이해도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 나아가서 추리력,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확대로 이어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겠다.

### 5.2.3. 수준별 훈련

수준차가 많은 학생을 한 곳에 모아 집단으로 훈련하는 것은 경쟁심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으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포기해 버리는 학생이 종종 목격되었다. 피드백 과정에서도 역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준별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수준별이란 지적 수준이나 독서 능력, 즉, 속해 자료의 이해의 수준은 물론 읽는 속도가 비슷한 학생들끼리의 반 편성을 말한다. 거기에다 지능지수 중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언어영역의 점수까지 참고하여 반 편성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겠다.

5회(1주) 정도의 훈련 시점에서의 평가 자료인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를 참고하여 수준이 비슷한 학생 10명 내외로 묶어 훈련한다면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여

러모로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훈련에서도 개인별 훈련보다는 수준별로 작은 모둠을 만들어 훈련하는 것이 약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7)</sup>

#### 5.2.4. 피드백

요약 모범 답안의 제시, 요약문에서 본문 내용과 다른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 긋기, 우수 작품의 발표, 요약문 돌려 보기,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하기, 문장의 종류에 따른 읽기 요령 지도, 요약 방법 지도, 주제나 핵심어 찾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빨리 읽기만이 아닌 이해력 증진, 발표력 신장, 글쓰기 능력의 향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5.2.5. 사전 치기

사실 이 속해 훈련법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훈련의 효과에 의심이 되었던 부분이 의미 단위로 사전 치며 읽기다. 먼저 학생들의 속해 자료 사전 치기를 살펴보자.

##### ▶ 사전 치기 1

인도의 간디는/ 서양에서/ 만든 복잡한/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 다. 그래서 간디는 인도인들에게 단순한 도구를 쓰라고 권했답니다./

그러나 간디는 딱/ 한 가지 기계에 대해서는 나쁜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봉틀입니다./

(21회 ‘불행한 재봉틀 발명가들 : 속해자수 1분당 768자, 송○란)

##### ▶ 사전 치기 2

그 숙녀의 이름은 니키다./ 그녀는 우리 집이 있는 길/ 아래쪽에 산/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어린 숙녀에게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쁜/아니라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며/삶에서 힘들 때마/다 나는 그녀가 가진 용기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불행은 그/녀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의사의 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

(36회 ‘니키’: 속해자수 1분당 829자, 송○림)

##### ▶ 사전 치기 4

그 숙녀의 이름은 니키다. 그/녀는 우리 집이 있는 길 아래쪽에 산/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어린 숙녀에게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쁜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삶에서 힘들 때마다 나는 그녀가 가진 용기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불행은 그녀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의/사의 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

(36회‘니키’: 속해자수 1분당 1,668자, 임○림)

##### ▶ 사전 치기 5

인도의 간디는 서양에서 만든 복잡한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인도인들에게 단순한 도구를 쓰라고/ 권했답니다./

---

17) 개인별 훈련은 혼자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과 이해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간디는 딱 한 가지/기계에 대해서는/ 나쁜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봉틀/입니다.

(21회 '불행한 재봉틀 발명가들': 속해자수 1분당 1808자, 배○화)

먼저 사선 치기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속해자수가 늘었어도 사선 치기기가 발전 단계대로(소강춘 외, 2002:23~26)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선 치기 2, 3과 사선 치기 4, 5를 비교해 보면 속해자수가 많은 학생(임○림, 배○화)의 사선 치기가 속해자수가 적은 학생(송○란, 양○화)보다 사선 친 문장의 길이가 훨씬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선 치기의 어떤 규칙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한편, 36회에서 1,945자를 읽었던 김○하의 속해자료에서는 사선 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는 빨리 읽는 학생에게서 나타난 현상으로 훈련이 20회 정도에 이르자 사선 치기가 점찍기로 나타났고, 35회 정도에서는 사선 치기나 점찍기가 사라지고 눈으로만 읽는 학생도 목격되었다. 이 점찍기는 사선 치기보다는 미세하나마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안된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점을 찍는 어떤 규칙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선 치기에 어떤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사선 치기의 문장 길이가 속해자수와 비례해서 길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속해자수의 향상에 비례하여 사선 치기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안구 훈련으로 시야의 폭이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며, 정확한 의미 단위가 아니었더라도 글자 한 자 한 자씩 천천히 읽거나, 소리를 내서 읽거나 하지 않고 사선 그어진 부분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읽었다는 증거도 된다.

또한 사선 치기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연필 들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안구 고착이나 한번 읽었던 단어나 문장을 재차 반복하여 읽는 역행 방지의 효과와 함께, 속으로 따라 읽는 음성화 현상을 어느 정도 제거시켰다고 본다.

## 6.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속해 독서법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속해 능력도 높아졌다. 40회의 훈련 결과, 속해 자수는 매회 26.7자 정도씩 빨라져서 처음 476자에서 1,592자에 이르렀으며, 속해 점수는 매회 0.06점 정도씩 증가되었다. 또한 속해자수와 속해력 상관관계는 0.438로 속해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속해 점수도 향상되어 속해 능력이 좋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속해 점수는 모든 교과 점수와 높은 관련이 있었는데, 국어가 가장 높았으며 도덕, 기가, 사회, 과학, 영어, 수학의 순이다. 속해 점수와 주·객관식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어, 도덕 객관식 점수와 높은 관련이 있었고, 주관식 점수는 모든 교과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국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속해자수는 국어, 영어 객관식 점수와 높은 관련이 있었고, 주관식 점수는 과학, 영어의 과목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국어, 사회, 수학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속해자수가 모든 교과와 유의한 결과를 보이거나 속해 점수가 모든 교과와 좀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실제로 속해자수와 속해 점수의 향상으로 교과 성적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속해 능력은 모든 교과목 학습의 기본 바탕이 되며, 이 능력의 향상으로 교과 학습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다.

안구 훈련은 처음 3.83회에서 13.06회로, 4배 이상 향상되어, 속해자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과 비례한다. 이는 이 훈련이 눈동자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고 시신경을 튼튼하게 하며, 안구 고착 및 역행 방지와 집중력의 향상으로 속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뜻한다.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의 읽기의 향상도가 눈에 띄었으며, 속해 점수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언어검사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속해자수는 물론 속해 점수도 높았다. 그러나 그 기율기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 지능에 관계없이 지능지수가 낮은 학생이라도 훈련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속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문제 풀이 훈련은 문제 구성이 내용 이해와 생각하기 문제로 되어 있어 이해력은 물론 사고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듣고 풀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속해 독서법이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속해 능력의 향상에 효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속해 훈련 시간의 확보, 속해 자료와 문제 풀이 문항의 수준별 제작, 수준별 훈련, 속해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바람직한 독서지도를 위한 한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속해 독서법은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언어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독서활동인 동시에,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제 7차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김성희(2001), ‘일반 독서교육과 속독 교육의 비교 연구’, 서원대학교교육대학원.
- 김효정 외(1999),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 올바른 독서지도 이렇게 하자」, 한국도서관협회.
- 노명완(1992), ‘독서교육’, 부산교육 262(‘92.7): 12-17pp.
- \_\_\_\_\_(2002) ‘읽기(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www.korea.ac.kr/~noh/](http://www.korea.ac.kr/~noh/)
- ‘독서: 사고, 학습, 인격, 지도력의 핵심’, [www.korea.ac.kr/~noh/](http://www.korea.ac.kr/~noh/)
- ‘독서의 개념’, [www.korea.ac.kr/~noh/](http://www.korea.ac.kr/~noh/)
- ‘중등학교 독서 교육의 실제와 활성화 방안’, [www.korea.ac.kr/~noh/](http://www.korea.ac.kr/~noh/)
- 두산그룹(2000-2002), [www.encyber.com](http://www.encyber.com)
- 박영목, 이인제, 김양희(2001),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독

서지도 모형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원중(1995), 「단숨에 읽은 영어」, 무한대.

\_\_\_\_\_(1997), 「Speed Reading」, 홍익미디어.

박화엽(1976), 「독서 능력육성을 위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사대논총, 14, 53-6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_\_\_\_\_(1989), 「안구행동과 정신집중력 및 독서이해도에 관한 실험연구」, 문집, 23, 185-211, 서원대학.

\_\_\_\_\_(1996a), 「속독 평가지 : 실험독서방법(제 8판)」, 독서행동개발사.

\_\_\_\_\_(1996b), 「과학적 속독법 : 실험독서 방법」, 독서행동개발사.

\_\_\_\_\_(1998), 「정신집중력과 속독과학탐구」, 독서행동개발사.

서명원(1995), 「종합 속독법」, 성안당.

신상곤(1988),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독서지도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소강춘, 원동연, 주경미(2002), 「언어 능력 향상의 길잡이」, 박이정.

손정표(2001), 「신독서지도방법론」, 태일사.

정동수(1987), 「영문독해와 속도지도」, 「영어교육」 33, 한국영어교육학회.

원동연(2001), 「5차원전면교육학습법」, 김영사.

우한용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이준엽(2002), 「독해력 향상을 위한 속독책략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교육대학원.

전라북도 교육청(2000), 「창의적인 독서교육」, 전라북도 교육청.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2002), 「선생님들이 직접 겪고 쓴 독서교육 길라잡이」, 푸른 숲.

천경록외(1998), 「읽기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한철우외(2001), 「과정중심 독서지도」, (주)교학사.

Dallman, M. & Others(1974), *The Teaching of Reading(5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Mortimer J. Adler, Charles Van Doren (1971), *How to Read a Book :* 오연희 역(1994), 「논리적독서법」, 한국도서교육연구원.

Smith. D. E. P(1976), 「*A Technology of Reading and Writing*」, vol.1, New York: Academic Press.

## 부 록

### <부록 1> 안구 훈련표

안 구 훈 련 표	정보처리능력기르기 이름 (            )
-----------	--------------------------------



그렇다고 1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그 간단한 스위치 하나 고치지 못한 저 자신을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는 다 무식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잘 하고 혹 못 한다고 하여 다 잘났고 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공부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부를 잘 하니까 행복할 것이고 다른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니 세상에서 뭘 하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재능, 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발견해서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의 분야에 파고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다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리이고 욕심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입니다. 만능 인간이 되고 싶겠지만 이 세상에 만능 인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혼자 고독과 싸우며 수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전문가가 있긴 합니다. 그것은 먹는 데 전문가, 노는 데 전문가, 돈 쓰는 데 전문가, 멋 내는 데 전문가,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민의 정을 갖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안에는 분명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그 분야에 일인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즐거울 것입니다. 물론 그 지겨운 공부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 재능을 스물 여덟에서 발견했으니 그 동안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출전 : 김형모 지음, '나도 잘 하고 있어요' / 도서출판 쪽지

### 요약 정리

- 글의 줄거리를 5~6줄 정도로 정리해 보세요.

---

---

---

---

---

### 선생님 의견

본문 글자 수	1,650 자
읽은 시간	분 초
1분당 읽은 글자 수	자
요약 정리 시간	분 초
문제 풀이	점

\* 1분당 읽은 글자 수를 속해 능력훈련표에 표시하고 그래프로 그려 보세요.

### <부록 3> 문제 풀이

## 불행한 재봉틀 발명가들

### ▶ 내용 파악

1.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ㄱ)
  - ㄱ. 불행한 재봉틀 발명가에 대한 이야기
  - 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계인 재봉틀에 대한 이야기
2. 최초 재봉틀 발명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ㄴ)
  - ㄱ.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 ㄴ. 손바느질 재단사들이 상점으로 몰려가 재봉틀을 모두 부셔 버렸다.
3. 재봉틀 발명가 중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ㄴ)
  - ㄱ. 엘리아스 하우
  - ㄴ. 이삭 매리트 싱어

### ▶ 생각하기

4. 재봉틀이 없었더라도 멋지고 실용적인 옷을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x)
5. 오늘날 편리한 컴퓨터식 재봉틀까지 나오게 된 것은 발명가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o)

## <부록 4> 요약 모범 답안

### ♠ 전문가가 되십시오

앞으로 모든 일은 전문화, 세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명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을 찾아 그 방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살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혼자 고독과 싸우며 수고해야 한다.